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6 No 2
2024.07.07.



2024 SUMMER 여름
한울타리

J. Kim
Monet - Water Lily Study 1
Jason Kim

편집: 홍보위원회

권두언 - 손편지	2
예배예술위원회	3
쉐마행사위원회	4
홍보위원회/역사편찬위원회	5
국내선교 위원회 - 뉴멕시코 단기선교 팀	6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7
English/Bilingual Ministry	8
* 김정선/조순래의 르완다 어린이 암환자 돕기 그림 전시회	9
해바라기 주일학교	11
Ransom 중고등부	13
부부청년부	14
* 우리 부부의 매일 감사 기도문	15
마리아 여성회	16
남선교회	17
권사회	17
상록기도회	18
* 신좌경 권사 천국 환송 기도문	19
* 구역소개 시리즈 (5) - 중앙 3구역	20
*칭찬합니다	
준비된 봉사쟁이 채진병 집사	21
진정한 수퍼 마리아 김은정 집사	22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는 이석원 집사	23
*선교지에서 날아온 소식 - 칠레	
이집트	25
*교우동정 - 이예복 교우	23
홍정표/ 박미영 집사 가정	27
* 3세대 교우 가정 소개 (4) - 이요한 목사 가정	28
* 옛교우 동정: 텍사스 은유네 소식	30
* 교육2부 - 한가족예술제후기	31
* 편집후기	32

얼마전 어느 목사님께서 안부의 메시지를 텍스트로 보내 오셨습니다. 그것도 저의 전화 번호를 몰라서인지 집사람 전화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안부를 텍스트로 보냈지...?’

잠시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전 NCKPC부총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저는 총회를 참석하지 않았기에 대신 손편지를 써서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결국 저의 손편지에 대한 하나의 답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날로그로 보낸 축하의 메시지를 디지털로 짧게 답을 받고 나니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아날로그 손편지를 써야 하나, 아니면 앞으로는 간단한 디지털 메시지를 보낼까...?’

해답은 쉽게 찾았습니다. 지금도 한울타리 원고를 컴퓨터 앞에서 작성하고 있어서 더 쉽게 찾은 것 같습니다. 늘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메일 체크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쯤은 편지지에다가 손편지를 쓰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sabbath가 아닐까요



예배예술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부위원장 김대식 피택장로

어느덧 2024년도의 반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울타리 봄호에는 처음 예.예.위원회를 맡고 어리둥절 헤매며 배움의 길을 더듬거리던 초.신입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제법 익숙한 듯 예배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매주일의 예배 시간은 아직도 맘을 푸욱 놓지 못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 . 매월 바뀌는 예배 섬김이(헌금 위원)를 위해 첫 주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히 하고, 매주 출석을 기대하고, 기도자의 도착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 . 예배시작 시간이 다가오는데 입장할 기도자가 안 보일 때, 기도 대리자를 맡길 제직분을 일찍 자리하신 분들 중에 간절한 눈길로 스캔을 하며, 찢쩍어 미리 청탁을 하고, 늦은 걸음으로 총총 들어서는 기도자를 보는 순간 ‘휴우~’ 안심의 미소로 반기는 기분...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 . 목사님 입장...! 목사님을 위한 물컵은 갖다 났을까? 총총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친교 봉사자에게 확인하고...
- .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방송실 섬김이들에게는 왠지 모를 신뢰감으로 점검이 없습니다. 방송실에 대해 아는게 없는 무지한 자의 신뢰감이랄까?
- . 또한 동시 통역자들에 대한 신뢰감도 마찬가지...

이래저래 예배 시간만을 위해 목숨바치 듯 긴장 속에 예배 진행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직업(?)은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봉사들이 예.예.위원회 섬김이의 손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 교육 1부의 VBS를 위한 방송실 기기 사용법 교육을 담당해주는 방송실 섬김이의 수고
- . 찬양팀의 찬양곡을 2부 예배시 뿐 아니라 항시 원할 때 교우님들이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 website에 올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 . 찬양대의 섬김도 빠질 수 없는 저의 무한 기대와 신뢰가 향하고 결국 은혜의 강물에 흠뻑!
- . 동시 통역 팀원 한 명의 재원이었던 이지우 교우가 장래 발전을 위한 학업의 연장으로 이주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놔주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빈자리를 이현주 집사님으로 채워주심에 할렐루야!
- . 참,참! 지난 5, 6월은 많은 학생들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더 깊은 학업을 위해 진학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젠 사회인으로 발걸음을 시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숨은 섬김이들을 종종 격려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들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쉐마행사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부위원장 최학수 집사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쉐마의 밤은 “선교와 나눔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뉴멕시코 단기선교팀과 이를 서포트하는 청년부의 나눔 그리고 해바라기 유초등부와 랜섬유쓰그룹의 지역사회 나눔을 보고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먼저 북서구역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치킨불고기 백반으로 든든하게 육신의 양식을 채우고 조나현 교우/김수현 학생의 촛불점화로 6월 쉐마의 밤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청 찬양팀과의 협연으로 쉐마찬양팀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시간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뉴멕시코 국내선교 소개팀의 스킷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본분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부르는 찬양은 선교를 향한 뜨거움을 더하게 해주었습니다. 선교를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서포트하는 우리들도 같은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진행하는 선교를 위한 음식바자와 나눔바자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2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임주광 형제가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잘 담아서 청년부 나눔사역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눔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지요! 교육1부에서는 해바라기유년부와 유쓰그룹이 함께 섬긴 복주머니 사역, 푸드 드라이브, 시니어센터 섬김사역에 대한 활동 보고를 박예원/정은택 전도사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즐겁게 나눔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생경합니다. 하늘에서 더 큰 복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쉐마의 밤에 예술적인 면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왕희연 교우님과 윤에스터 사모님이 “벨라판타지아”를 오보에와 피아노로 합주해 주셨습니다. 밤하늘에 퍼지는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그 자리에 함께한 교우님들의 마음을 은혜와 감동으로 잔잔하게 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난 한가족 예술제 인기팀인 부청의 앙콜공연 “주 나와 함께 하시니”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뜨겁게 된 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떠나는 자는 경이로우니”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왜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고 그 곳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는 선교팀과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와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서포트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쉐마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위원회/역사편찬 위원회

위원장 이혜승 장로
부위원장 배광현 집사

한울타리 봄호 발간 (4.14.2024)

바쁘신 가운데도 교회 소식지를 위해 원고 날려주시는 위원회 장로님들, 각 부서 장로님들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들을 한울타리를 통해 함께 나눠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사랑과 도움에 힘입어 한울타리가 계절별로 탄생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밤샘 작업하며 함께 달려주시는 편집위원분들 (김하나, 배광현, 윤경문, 정유미, 정은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한인단체 스폰서 제공 (5.17.2024)

본교회는 창립시절부터 꾸준히 해왔던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스폰서 역할을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미션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한인 정치 인턴 프로그램을 20여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한인시민협회를 도와드렸습니다. 예전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던 어머니교회로서 앞으로도 한인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도울 예정입니다.

홍보부에서 함께 일할 일꾼을 구합니다. (문의: 이혜승 장로 - epiyodler@hotmail.com)

교회 웹사이트 유지 및 관리자: 현재 저희 교회 웹사이트(kcboston.org)를 전담하여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 시간에 맞춰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기본 지식만 있으면 되는 봉사자리이며, 혼자 독박쓰는 자리 아니오니 안심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YouTube Channel 관리자: 2024년이 가기 전에 시간되는대로 교회 유튜브 채널 maintenance를 해보려고 계획중입니다. 불필요한 영상들은 내리고 편집이 필요한 영상들은 편집을 좀 해서 다시 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영상작업을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도 받습니다.

교회 행사 사진/영상 담당 기자: 교회 행사나 모임시에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교회 역사를 남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고가의 사진기를 보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별한 사진찍기 능력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아이의 사진/ 셀카 한 번쯤 찍어보신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매 행사때마다 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될 예정이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나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울타리 기자: 한울타리에 실을 기사들을 모으고, 발로 뛰기도 하며 폭넓게 교인 분들과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도 지원하세요. 영어 편집자도 필요합니다.

이벤트, 부서/구역 홍보

각 그룹의 이벤트나 부서/구역 홍보가 필요한 부서는 홍보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공조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선교 위원회 - 뉴멕시코 단기선교팀

위원장 안성완 장로

어느 날 아침, 한 비즈니스맨이 늦잠을 자서 아침 미팅에 늦지 않기 위해 허겁지겁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뛰어 모퉁이를 돌 때, 들고 있던 가방에 뭔가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골목길에서 과일을 팔던 과일 장수의 사과에 부딪혀 썩어 놓았던 과일이 여기 저기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바쁜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다가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장수는 앞을 못 보는 장님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사과장수 소녀는 무너진 사과를 더듬더듬 줍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은 바쁜 걸음을 뒤로 하고 과일을 같이 줍고 상처난 과일을 모아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때 소녀가 말했습니다. 이 소녀의 말에 그는 한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가 한 말은 “당신은 예수님입니까?”

이 이야기는 2010년 단기선교 때 Pena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후 Pena 목사님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여기 니카라과에 와있고, 니카라과 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 생각은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는 말인가? 또 어떻게 나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부담”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선교단원들이 부담스러워 함을 눈치채셨는지 Pena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부족한 우리들 힘만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허나, 부족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과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단기선교단 표어는 (Theme)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심을 믿기에 나바호 현지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올해의 단기선교단 Theme 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부족한 저희 선교단원들은 선교지로 향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을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나바호 단기선교단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시: 2024년 7월 13일(토) - 7월 20일(토)

선교단원: 이선영, 김희진, 김호영, 조나현, 정윤원, 부지형, 안성완, 이혜원, Jack Kim, David Kim (10명)

음악교육 - 조나현, 정윤원, 부지형

Art팀 - 김희진, 이혜원

찬양팀 - 부지형, 정윤원, 김희진, 이혜원

성경공부 - 안성완, 김호영, Jack Kim, David Kim

레크리에이션(Sports) - David Kim, Jack Kim, 이혜원

음식준비 - 이선영

서틀운영 - 김호영, 정윤원, 부지형

정평환 위원 일원인 조이남 집사와 자녀 성예진/명진 교우가 교회의 앞/옆 뜰 공간에 깃잎 모종을 심었습니다. 잘 자라서 수확할 수 있을 때 교회 행사나 음식 준비 재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뉴저지 밀알선교단 - 밀알 사랑의 캠프

해마다 7월이면 미국 동부 10개 밀알선교단이 함께 모여 밀알 사랑의 캠프를 가집니다. 금년으로 벌써 29회 째를 맞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밖에 없는 2박3일의 짧고도 귀한 시간, 장애인들과 그 부모와 가족들이 봉사자들과 다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휴식과 즐거움과 힘겨운 삶의 위로를 나누는,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지는 행사입니다.

사랑의 캠프의 의미와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에게 위로와 유익을 주는 시간입니다.

봉사자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꿈에 그리며 기다리던 행사에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같이 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회비로 받기 때문에 캠프를 개최하는 데는 많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이번에 귀 교회에서 6명의 회비를 후원해 주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250/1인당)

2) 상기 후원이 어려우시면, 후원금 마련을 위한 땅콩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교회가 우선 밀알땅콩 판매의 목적을 성도들과 나누고 구매량을 파악하여 단체로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 *체중과 혈압관리에 좋은 알이 크고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미국산 땅콩입니다.
- *North Carolina 에서 생산된 Raw-Shell Peanuts 3Lbs = 1 bag 을 \$20/bag 에 판매
- *6월10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밀알에서 직접 픽업 가능
- *만약 Delivery 를 원하시면 UPS 운임비가 추가됩니다. (지역과 수량에 따라 운임비는 변동됨)

3) Check 작성: Pay To "America Wheat Mission", Memo 난에 "사랑의 캠프 회비" 혹은 "땅콩" 을 꼭 써주시고, Milal Mission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후원은 장애인들에게 큰 용기와 기쁨,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English service of the EM/BM ministry has been slowly growing and finding its place as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KCB). 20 months ago when the English service was organized, we had the service once a month. Then twice a month, and now we are having the service three times a month. When we do not have the service, the bible study is organized.

We have around 15 worshippers attending every Sunday (ranged 13-21 ppl). We are building a good fellowship with the worshippers. One of the things we do to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is to hold monthly lunch gathering on the last Sunday of each month. Interactions among different generations are always fun and the beauty of this gather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yet challenges, of the English service is to find preachers for each Sunday since we do not have a pastor who is in charge of the EM/BM ministry. We are grateful for having two preachers who provide pulpits. Pastor Eunil Cho is the main preacher, and Pastor John Sweet is a guest preacher who never says "NO" to us.

Another important part of the English service is to have a praise leader. Presently John Bu is a main praise leader.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alternative praise leader who can lead the praise during the worship service when John is absent. Enoch & Sung-Hye Lee, David & Esther Yoon, Sung Ahn have helped us with John's Absence.

We will have a two year anniversary service this coming October. We can truly say "Praise The Lord!"



Jason and Soonrae's Art Exhibit

Boyden Library (Foxboro Public Library)
10 Bird St, Foxboro, MA 02035
www.boydenlibrary.org

Monday, August 5 – Tuesday, September 3, 2024
Mon- Thur 10-8 Fri 10-5 Sat 10-1
Sun closed

Opening Reception

August 7. Wednesday. 5pm-7:30 pm
(No food or drink served due to Library policy)

Every Saturday Jason and Soonrae will be at the Library Exhibit Hall
If you want to see Jason other time, please call (617)780-7205



<https://danafarber.jimmyfun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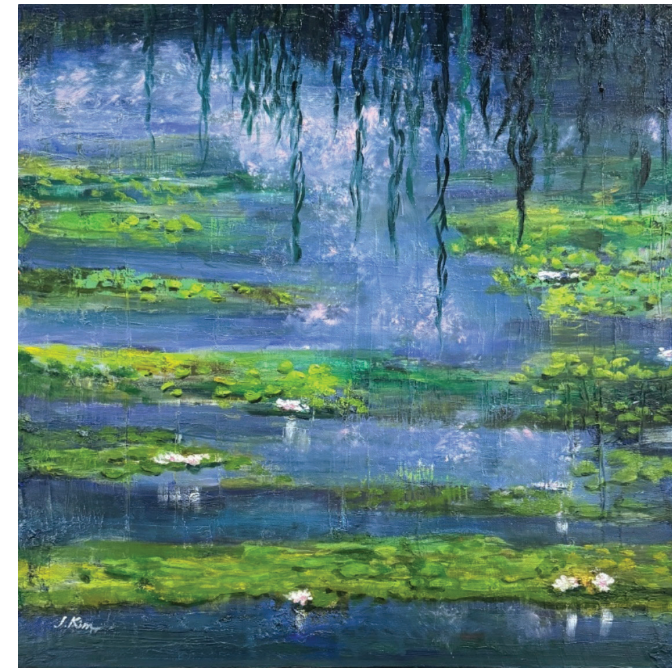
아프리카 어린이 암환자를 돕기 위한 그림전시회 (To Benefit Dana Farber Cancer Institute)

김정선 은퇴장로

I, Jason Kim, am a cancer patient. I have been through Chemo and Radiation therapies for almost 3 years and am still under Chemo every other week at the Dana Farber Cancer Institute (DFCI). My oncologist, Dr. S. Slater, has taken care of me from the beginning of Chemotherapies.

Recently, I decided to continue my painting journey as an endeavor to overcome my cancer. As I learned about outreach Initiatives for pediatric cancer patients in Rwanda through my doctor, I wanted to help. Dr. Slater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this life saving mission team and her team has taken care of more than 2,000 patients in Rwanda. 20% of them are children. Her team has visited the Center of Global Cancer Medicine (CGCM) of DFCI in Rwanda twice this year while they have been doing all year-round online consultation for those cancer patients in Rwanda. They have been dedicated to this life saving mission; however, they cannot help with patients' financial hardship. Many families in Rwanda cannot afford cancer treatment due to the extremely high costs. I am asking you to join us to help children with cancer in Rwanda, who desperately seek for financial support. The goal is to raise \$10,000 and 100% of your donation will go to DFCI (tax-exempt). Help us. Donate today.

Jason's Blog: <https://blog.naver.com/jasonkimr/223356222749>



해바라기 유초등부 주일학교

박예원 전도사

선플라워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흘러 여름에 다다랐네요. 저희 아이들은 봄에 활짝 핀 꽃처럼, ECC라는 공간에서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조금 소란스럽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걸 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순간을 바라보는 전도사로서는, 아이들이 적어도 교회라는 공간을 지루하거나 따분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나는 아이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선생님들을 통해 심으신 말씀의 씨앗을 예쁘게 키워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믿음으로 감히 말하기로는, 교회의 미래는 저희 선플라워 아이들로 인해 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봄에는 교육부 특성상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4월에는 특별히 권사회 주최로 교육 1부 오찬을 준비해주시며 교육 1부 선생님들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식사 이후에 이어지는 VBS 전체 첫 회의를 진행하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며 집사회에서 2부 순서로서 어린이 주일 기념 부스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순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사회 회장님이신 배광현 집사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들여 연습하고 준비해주셨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교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어머니 주일에 아이들은 어머니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선생님 감사주일을 통하여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그간의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이후 한가족 예술제에서는 박재미 집사님과 육혜진 집사님의 열정으로 준비된 아이들의 예쁜 목소리와 수화로 그간 가지고 있던 마음 속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VBS를 위해 준비하며 분주하지만 깊은 감사와 기대함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대면 여름 행사로서 모두 기대함으로 준비중인데요, 현재로서는 총 52명의 아이들이 등록했고, 그 아이들을 위해 약 40여명의 선생님들과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같은 열심과 같은 사랑으로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여름 행사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Update: 많은 교우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주일학교 VBS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고 감사함 속에 6/22-23 양일에 걸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VBS도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60여명의 어린이들과 40여명의 선생님+봉사자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멋진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스그룹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우 알차고 풍성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번에 나눈 것과 같이, 3월말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가 하나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5월 중순에 그간 유스그룹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여 이제 졸업할 때가 된 학생들은 3개월간 훈련을 받고 견진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매 주일 오전 일찍 모여 준비해온 자료를 함께 읽고, 나누고, 질문하고 배우며 가르치는 저와 늘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아이들 모두에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Text Box교육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과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학생들 모두 교육을 통해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나누어주어 가르치는 저로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찬이, 준, 재민이 모두 견진식이 있던 주 2부 예배에서 자신의 고백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주었고 그 당일날 유스그룹이 예배 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세 학생의 고백에 증인이 되어주셨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의젓한 형, 누나, 언니 오빠의 고백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나중에 성장하여 성도분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멋지게 고백하는 의젓한 선배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5월에 End of semester 및 senior banquet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졸업하는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들을 위해 조셉 선생님께서는 한 해 동안 유스그룹의 활동들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멋진 영상을 만들어 주셨고, 부장 선생님을 맡고 계신 최안나 집사님께서 전체 행사의 기획과 조직, 정리와 데코까지 모든 것을 담당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에 더해 학생들도 mc로서, 앙상블로서 다양한 형태로 한 해 동안의 수고와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유스그룹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나누어주었고, 각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친구, 선생님들이 화답하는 스피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부모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여름 활동들을 통해서 유스그룹이 어떤 은혜를 맛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부부청년부입니다. 지난 6월 7일, 8일, 9일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은혜 넘치는 부부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한층 가까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부청식구들이 한가족으로 연결되는 멋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육아와 미국생활에 지쳐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는 시간이기도 했고, 배우자와 가족 또 부청식구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한 주는 형제자매모임으로 모였고, 지난 6월 15일 쉼마의 밤에는 부청식구들의 적극 참여로 부청 찬양팀은 쉼마 찬양팀과 합류하여 예배를 도왔고, 왕희연 자매님은 오보에 특별찬양 연주로 쉼마를 빛냈으며, 한가족 예술제 때 함께 찬양했던 찬양곡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를 부청식구들 모두 특별순서로 참여하여 즐거운 찬양을 하였습니다.



부청6월 마지막 주는 새가족 환영회와 7월 방학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멤버들이 특히 많은 부청이라 늘 새로운 만남과 아쉬운 작별이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오랜기간 부청 회장님으로 수고하신 홍정표/박미영 집사님 덕이 놀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하셔서 마지막 주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머물든지 연결되어있는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 속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7월 한 달 방학 후, 8월부터 새 힘으로 모여 힘차게 나아가길 부청을 기대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 아침에 눈을 뜨며 소리높여 감사 /
- 침대 옆에 배우자 있음에 감사 /
- 55년간 잠자리 함께 깨며 감사 /
- 창문 커튼 활짝 열며 환함에 감사 /
- 빛되신 하나님 함께 하심 감사 /
- 아침 먹고 산뜻한 하루 시작 감사 /
- 아침 동네 세 바퀴 돌면서 감사 /
- 힘찬 걸음 맑은 공기 마시며 감사 /
- 맥체인식 성경 4장 읽으며 감사 /
- کمپ션 어린이 매일 기도 감사 /
- 찬송가 한장씩 찬송하며 감사 /
- 격일* 맑은 중보 기도 드리며 감사 /
- 한시간 아침 일과 끝나서 감사 /
- 점심 먹고 두 바퀴 걷고는 감사 /
- 낮잠으로 재충전된 생활에 감사 /
- 저녁먹고 두 바퀴 걷고 나서 감사 /
- 사계절 7천여보 매일 걸어 감사 /
- 메시지 성경 주신 주 권사님** 감사 /
- 취침 전에 메시지 성경 읽고 감사 /
- 우리 영혼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 /
- 뽀뽀하고 잘 자요 하나님께 감사 /
-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 /
- 주님께 영광 찬송 기도하며 늘 감사 /

한 없는 감사 찬송 영광은 오직 주님께. 아멘

*격일로 홀수날은 남자가, 짝수날은 여자가 중보 기도하며, 다음해는 반대로 한다.

**주선애 권사님 (1924.2.20-2022.6.19)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메시지 성경 저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는 1950년대에 뉴욕의 비브리칼 신학교 동창이시며, 집사람의 작은 어머님 되신다

마리아 여성회 봄소식 전해드립니다.

1. 동북대회 연합수련회 (Korean Presbyterian Women/Synod of Northeast) 참가

3월 마리아 여성회 헌신예배 이후 주님께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주님의 딸들인지 감사가 더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동북대회 연합수련회 (KPW/SNE) 참가, 올 해 두번째 마리아 친목회 개최, 광서영집사님 아버지 장례예배섬김 그리고 상록회 식사섬김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동북대회 연합수련회는 이번에 New Jersey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영순 권사님과 이소은 집사님이 참가하셨습니다. PCUSA 동북지역 한인 여성회의 모임으로 강의도 듣고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는 크리스천 여성들의 심리적인 고난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등 여러 주에서 오셨고 김영순 권사님께서 2부 강의 반주를 맡아 해주셔서 더욱 자랑스러운 동북대회였습니다.

2. 4월 27일 올 해 두번째 마리아 친목회

4월 27일에는 올 해 2번째 마리아 여성회 친목회를 가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직장을 나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 라이드에 바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오셔서 삶에 대해 나누고 격려하고, 새로오신 분들 소개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나누며 서로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3. 4월 28일 광서영집사님 아버지 장례 예배 섬김

4월 28일에는 마리아 여성회를 위해 늘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광서영 집사님 친정 아버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하나 억지로함 없이 모두 사랑하는 마리아 여성회 회원이신 광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식사 준비, 화환 준비, 식사 서빙, 설거지, 방명록 작성, 사진 촬영, 테이블보 세탁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성도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 마리아 여성회의 큰 사랑과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집사님의 가정에서 큰 감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편 34편 18 절) 마리아 여성회 회원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능륜한 하나님의 정예 요원들이셨고 모두의 마음이 모인 아름다운 천국 환송 예배였습니다.

4. 5월 26일 상록회 식사섬김

5월 26일 상록회 식사 섬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맘을 흘리며 맛있는 음식 준비했고요 밤양갱, 식혜까지 만들어 온 우리 회원님들 진짜 재주꾼이십니다. 마리아 여성회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충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효녀들이며 잘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회장 최현구 장로

2024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남선교회 골프대회가 5월 11일 토요일 아침 9시20분 Braintree Municipal Golf Course에서 열렸습니다. 계속되는 비 예보에 주최측으로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였지만, 결국 골프치기 안성맞춤인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라운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9시45분까지 현장에서 등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후, 임원진에서 따로 주문하여 준비한 김밥과 골프장에서 주문한 샌드위치를 나누어 받고, 미리 편성된 6개 조가 순서별로 티오프를 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총 22명이 참석하였고, 정재원 집사님이 싱글을 기록하는 등 좋은 기록도 나왔습니다. 이번 골프대회 결산 결과 경비를 제외한 \$2,500의 순수익을 선교기금으로 교회에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따로 헌금해주신 분들, 그리고 기획, 준비와 진행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남선교회 임원단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권사회

회장 김경희 권사

우리 권사회에서는 지난 3월 부활절에 부활절의 기쁨을 온 교우분들과 나누기 위해 계란샌드위치를 만들어 1부와 2부 예배 다과로 제공했습니다. 계란 216개와 오이 60개의 희생으로 전교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가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만들고 또 베푸는 일이 얼마나 기쁜일인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4월에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모든 교사님들과 그 가족분들까지 점심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교사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따뜻한 밥상으로 대접하며 권사회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70여명이 같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만큼' 맛있었다는 칭찬과 인사가 너무 황송했습니다. 앞으로도 권사회는 더 많은 교우님들을 섬기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임을 누리고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상록기도회

회장 이재명 집사

상록기도회 소식을 전합니다.

심방

3월29일(금): 주정대 집사님, 김현지 권사님을 방문, 위로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5월22일(수): 박기춘 권사님을 방문, 찬양과 위로,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국환송예배

4월28일(일) 오후4시: 곽을두 교우 (곽서영 집사 부친)
5월17일(금) 오전10시: 신좌경 권사

장례예배

5월19일(일) 오후5시: 주정대 집사의 장례예배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한가족 예술제에 참가

5월 19일에 있었던 청년부 주관 한가족 예술제에 참가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였습니다. 정영선 권사의 지휘로 15명이 참가하여 아버지 우산상을 받았습니다.

교회안 르호봇 연못 화단 정리

5월 9일(목) 교회 안 르호봇 연못 및 화단에 꽃과 나무를 심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록기도회 헌신예배

7월21일 주일에 상록기도회의 헌신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좌경 권사님 천국 환송 기도문

김문소 은퇴 장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신좌경 권사님이 백세 넘게 건강하게 저희들과 함께 신앙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신 권사님 백세 축하연에서 감사와 축복 기도를 드린지 어언 10년이 다 되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신 신 권사님의 천국 환송을 위해서 이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자녀손들을 자랑스런 인물들로 키워주신 신 권사님

모든 일에 사리가 분명하신 신 권사님

우리 신앙 생활에 본이 되어주신 신 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며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잘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권사님이 살아오신 그 멋진 발자취를 따라 걸어오신 그 길고 긴 험난한 길 위에 꽃을 피우고 꽃향기 뿌리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것이 신 권사님의 유지인줄 믿습니다

신 권사님 고맙습니다.

신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 권사님 평안히 주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5월 17일 (금) 10시 KCB

구역소개 시리즈 (5)-중앙 3 구역

구역장 김대식 피택장로

저희 중앙 3구역은 교회 근처에 거주하는 가정들, 특히 단기 연수나 연구원으로 오신 가정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구역입니다. 이후 많은 가정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양한 곳으로 정착하게 되어, 현재는 교회 근처뿐만 아니라 뉴튼, 앤도버, 벨링햄 등지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주로 40대부터 60대까지 있으며, 그중에서도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들은 중고생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까지 다양합니다. 구역의 반 정도는 10년 이상 함께 활동해왔고, 나머지 가정들은 최근 5년 이내에 새로 가입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들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월 2회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친교와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눕니다. 대면 모임의 경우 교회나 구역원 가정에서 모여 식사를 함께 한 후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성경 공부는 '킹덤 라이프' 교재를 사용하며,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과 신앙을 더욱 깊이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실내 구역 모임 외에도 날씨가 좋은 공휴일에는 야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깁니다. 예를 들어 바베큐, 하이킹, 낚시, 등산, 캠핑, 해수욕 등이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얼 데이에는 저희 집에서 바베큐를 하고 이후 가까운 볼링장으로 이동해 볼링을 즐겼습니다. 특히 여름 방학 때는 성경 공부도 방학을 맞이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Wingersheek Beach에서 눈부신 얇은 모래 해변을 즐기고, Cape Cod로 배낭여행을 가서 도미와 우럭을 잡아 함께 요리해 먹기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White Mountains의 Flume Gorge로 단풍 산행을 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야외 활동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체험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욱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중앙 3구역은 이렇게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구역에 오셔서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칭찬합니다~~

준비된 봉사쟁이 채진병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주일이면 언제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기러기 남편을 둔 것도 아니고, 남편과 격렬히 싸운 것도 아닐 텐데.. 예쁘게 차려 입고 앉아서 매 주 혼자서 예배 드리는 최수경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되시는 채진병 집사님이 방송실에서 2부 예배를 위해 봉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방송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매순간 긴장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순서에 맞춰서 화면 띄우고, 새교우님들을 카메라로 잡고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으시냐 라는 질문에 채집사님은 바로 답변하시길, “오히려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성도님들이 드리는 정성스럽고 간절한 기도를 옆에서 듣는 것처럼 공감할 수 있고, 찬양대의 멋진 화음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엄청난 감동을 깜빡이도 안키시고 이렇게 냅다 던져버리시는 우리 채집사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교회 행사준비로 방송실 장비를 켜고 화면을 띄워야 하고, 유튜브도 송출해야 하는데 방송을 도와 주시기로 하신 분이 못 오시게 되어서 장비를 연결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가 혈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미안 미안.. 내가 늦었지?” 하시며 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구나..’ 라구요.

주일날 교회 안팎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유독 채진병 집사님을 마주치면 언제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같이 하시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의 손길이 닿기 전 저의 귀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목소리로 인해서 받는 위로와 감동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힘을 주고 있는지.. 작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지.. 쉽지 않지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다시 주일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벅칩니다. 함께 할 누군가가 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위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교우님들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채진병 집사님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진정한 수퍼 마리아, 김은정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김은정 집사님은 1,2부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매주 섬기고 계십니다. 무려 25년 동안 말이죠. 은정 집사님의 아름다운 소리는 모든 찬양을 더 은혜롭게 가슴에 넣어주십니다. 훈련된 노래장이의 탠런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어여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집사님의 찬양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김은정 집사님은 올해 Youth Group PTA회장으로서 중고등부의 여러 행사를 리드하고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여러모로 동분서주 애쓰고 계십니다. 마리아 여성회 총무로도 활동하시면서 1부 다과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매주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또 그 분들께 매주 연락을 드리고 헌물로 준비하시는 분들과 1부 다과 서빙하시는 분들께도 정확하게 연락을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1,2부 성가대 섬김을 하시면서 1부 와 2부 예배 사이에는 마리아 여성회 일도 함께 감당하고 계시고요. 늘 말씀을 사모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귀감이 됩니다. 여기저기 꼼꼼하게 또 야무지게 봉사하시는 우리 수퍼맘 최강동안 김은정 집사님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는 이 분, 이석원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코로나 팬데믹때 기억하세요? 정말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직장이 In-person 에서 online 으로 전환되고 많은 분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피했었죠. 우리 교회도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In person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한 동안 Online예배를 드렸던 거 모두 기억하실겁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걱정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복음 22장 27절 말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석원 집사님입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 집사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방송실을 지키주셨습니다. 항상 예배가 시작하기 한 참전에 오셔서 혹시라도 있을 방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장비를 확인하시고 예배전에는 방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외에도 방송이 필요한 쉼의 밤 등 여러 교회 행사 때 술선수범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 중에 이석원 집사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교인들을 반겨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팬데믹은 지나고 우리의 일상은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왔기에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삼 느끼는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결같이 좁은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석원 집사님께 격려의 한마디 해주세요. 코로나 때 너무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고요.

<편집자 주(註)> ‘칭찬합니다’ 코너는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우님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코너로 칭찬하시는 분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온 칠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에서 저희 사역과 가족 모두 강건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아내의 건강 - 최근 주치의로부터 여러가지 치료에도 도무지 차도가 보이지 않아 다른면에서 아내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아내의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원인을 찾았으니 치료가 용이하고 회복과정이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내도 이 소식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과정을 위해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칠레사역 - 이번 학기에는 7명의 대학생들이 저희 공동체 집에 입주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어 12주간 동안 실시하는 주말 영성제자훈련에는 17명의 대학생들과 전문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을 마치면 겨울방학을 이용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전도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항공료와 체류비로 약 1만6천불의 재정을 모금하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훈련생들이 믿음의 돌파를 경험하고 인격적인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순회사역 - 올해 중반기에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에서 순회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학사역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섬기고 지역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어 성경이 읽어지네” 집중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4. 보수공사 - 3월부터 시작된 주택보수공사는 은혜 가운데 진행중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마쳤고 겨울이 지나는데도 지붕보수와 시멘트 바닥보수 공사, 그리고 외부 페인트를 하면 계획했던 모든 보수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2만불을 예상하고 시작한 공사인데 현재까지 1만 3천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도움에 감사합니다.

5. 선교관의 확장? - 저희 선교관과 맞붙은 옆집에는 81세가 된 알리시아(Alicia) 할머니가 홀로 큰 집(저희 선교관과 같은 크기)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아도 집이 관리가 되지 않아 낡아지는 모습을 보며 도움을 제안해도 거부한채 홀로 살아오시다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늙은 오빠와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장례를 도와 드리고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집을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늘어나는 사역에 비해 협소한 장소를 놓고 기도해 왔는데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번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제게는 숨겨는 딸(?)이 있습니다 - 저희는 지난 2019년도에 Bless Mongolia라는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저희에게 임무된 K라는 마을을 찾아가 전도하면서 일찍 교통사고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마을의 유일한 신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미망인의 자녀들 중 막내 딸을 후견인으로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노미오입니다. 그 동안 믿음으로 잘 자라 올해 몽골리아의 수도 울랑바토르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아들만 셋인 저에게 매일 “아빠”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는 딸(?)의 목소리와 메세지를 받는 것은 큰 감동을 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녀로 입양하신 “아빠”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선교사라는 이유로 저희들의 영적 후견인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보스톤한인교회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희는 봄학기를 마치고 지난 주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썬가브리엘 노회 소속 미션 홈으로 우리교단 선교동역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선교동역자들이 미국에 돌아오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데, “House of Rest”는 저희들에게 머물릴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귀한 장소입니다. 약 백년 전 남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사업가셨던 Gamble 장로님이 기증하시고 지금도 그 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를 돌아보면 그저 바빴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된 요즘 전세계에서 아랍어로 신학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거의 카이로장로교신학교로 등록을 합니다. 수업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바울신학에도 54명, 제 아내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방법론에도 7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어 학사관리를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 두 명 조교가 돕는다해도 결국 하나 하나를 선생인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는 저희가 아니기에 시간이 두 배는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뿌듯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집트와 중동 그리고 온누리에 있는 아랍어권 교회의 리더로 활동한다는 것과 또 저희를 통해 소개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학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학기를 끝내고 전해지는 감사 인사를 읽으며 수업을 통한 변화를 느낍니다.

지난 봄 감사한 일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룩소와 아스완으로 필드 트립을 떠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몇 해 가지 못한 것을 복원하여 다시 간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유명한 관광지에서 스며 있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와 유적에 문외한이나 성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곳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제가 나서서 한 시간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째는 Medinat Habu 로 Ramses III의 장례신전에 새겨진 북쪽 벽의 부조입니다. 그는 청동기 문명을 쇠퇴로 만들고 이집트 신왕국까지 쳐들어온 Sea Peoples를 격퇴한 사건을 거대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특기할 것은 머리장식을 한 고대 블레셋인들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출애굽의 역사성을 증명하려 하지만 사실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 민족들이 가져온 청동기문명의 종말과 이집트의 쇠퇴로 발생한 팔레스타인의 공백에 고대 이스라엘 부족연합이 들어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들이 약 이백년간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던 것은 사사기가 생생하게 전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스완 댐 아래에 있는 Elephantine 섬입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나일강 중간에 있는 섬을 보고 놀라십니다만 여기는 사실 주전 5세기 유대인 용병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살았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그룹이 이집트로 도망치게 주전 7세기이고 또 역사에 수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끌려 온게 주전 4세기입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처음 찾은 것을 주전 18세기 경이라 보고, 아기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왔으며, 아직까지 이집트에 유대인 회당들과 유대인의 후예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엘레판틴섬은 유대인 혹은 셈족의 끊임없는 애굽으로의 이주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 바쁜 일정을 갖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장로교총회의 위원회가 시작되었고 다음 주는 Salt Lake City에서 총회에 참석합니다. 총회가 끝나면 곧 펜실바니아와 오하이오 주로 떠나 New Wililmington 선교대회에 참석하며 동시에 약 3주간 미국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중동지역에 미국장로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지 거의 180년,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곳에서 저희들같이 부족한 이들을 통해 하시는 역사를 증거할 계획입니다.

두 해 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선합니다. 다시 뵈 때까지 주님 은혜로 매일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신에스더, 박노아 드림

감사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청년부 소속(이지만 부부로 교회생활은 하지 못했던) 이예복입니다.



작년 1월에 너무 추웠던 보스톤 땅에 첫 발을 딛고, 한국에 있는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한 지 딱 1년 반이 지나,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까지의 날들보다 보스톤에서 생활한 날들이 훨씬 많아진 시점입니다. 늘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얘기지만 1년 반은 쏠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주변 가정들과는 다르게 혼자인 스스로가 괜히 서럽고, 이런 저런 낯선 상황들로 쉽사리 눈물을 보이기도 해서 ‘보수동 울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교회에 처음 출석한 후, 담임 목사님께서 새 교우인 저에게 환영 전화를 주셨는데 그게 마치 굉장한 위로같이 느껴진 나머지, 전화 너머의 목사님 모르게 울컥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철없고 민망하지만 동시에 그 시기를 잘 견디게 해 준 보스톤한인교회 교역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우리 부부 청년부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람을 참 좋아하고, 만남으로 활력을 얻는 성향으로서 남편, 가족, 친구, 지인들이 없는 상황은 저로 하여금 외로움을 넘어 우울한 느낌을 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 만으로 충분하고 풍성한 삶을 깨닫게 하시고자 나에게 혼자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아등바등 열심히 헤쳐 나가거나, 주변의 ‘좋은’ 사람들에게 의탁하기 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 당신을 오롯이 찾고,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이 결혼 이후에 쉽사리 선택하지 않는 롱디 유학이라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이 시간을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즐기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귀국이 약 40일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웃으며 목례하는 경호 직원,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며 손을 뻗어 하이파이브를 제안하는 사람, 버스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같이 좀 먹자는 농담을 던지고 서로 웃는 사람들... 이제껏 보스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긴장과 경계로 매 순간을 살아왔기에 보이지 않았던 이곳 사람들의 즐겁고 행복한 일상의 모습들이 이제야 조금씩 포착이 되는 듯합니다. 문화와 도시의 특성상 이전에는 눈살을 찌푸리고 속으로 비난했던 크고 작은 풍경들이 이제는 좀 더 흥미롭고, 유쾌하고, 매력이 넘쳐 보입니다. 늘 내 시선과 기준에서 이 곳 문화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못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편견 가득하고 오만했던 나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스톤한인교회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살면서 또 다시 보스톤에 여러 번 찾아올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넘치기에, 저 또한 한국에 돌아가서 이어가게 될 삶 속에서도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반 전 보스톤한인교회에 함께 출석해 부부로 등록만 하고 훌쩍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보고싶은 남편에게도, 1년 반 동안 16시간 떨어진 한국에서 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버텨주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2024년 6월 5일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보스톤한인교회를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이 사랑했던 교회이기에 그저 아쉬기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떠나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 그 가치, 의미, 사랑..... 이제야 비로소 쉼의 밤 땀을 때 늘 부르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을 부르는 의미를 반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되새겨집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양에서의 가정의 의미가 우리가 속한 부서,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임을 알게 해 준 보스톤한인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저희 가정을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리울 보스톤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좋은 날, 좋은 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절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스톤 땅에서 Christian Korean American 으로 살아가는 우리 3세대 (김경섭, 주미옥, 이요한, 김희진, 이윤찬, 이해원)의 믿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캐릭터이지만 주님안에서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어가는 가족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와 주시고 앞서 인도하시며 강함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놀라고 감격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06년 한국에서 보스톤 땅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한 순간도 호흡할 수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쉼(말씀을 듣는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 가위바위보로 식사 기도시작.

주말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 (김경섭 집사님)는 나무조각 뿐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서 손주들에 좋아하는 수제비, 김밥, 해물 부추전 등을 직접 만들어 주십니다. 할머니 (주미옥 권사님)은 맛집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셔서 ^^ 매운 갈비탕, 도가니탕, 떡볶이와 김말이 등 한국 음식을 한상 준비하시고, 특별한 날에는 나물요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엄마 (김희진)와 아빠 (이요한)는 아이 (이윤찬, 이해원)들과 함께 수저를 놓고 세팅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은 모두 자리에 앉아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오늘의 기도를 맡는 것입니다. 지난 식사에는 할아버지가 기도에 동참되어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도 중에 종종 눈가에 눈물이 축축해지시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윤찬이가 이겼습니다. 윤찬이는 손을 모으고 가족식사를 위해 영어로, 때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들으시기 편한 한국어로 기도합니다.

“Dear God,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음식을 먹으며 몸과 믿음이 함께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미국에 도착한 날을 생일처럼 기념하는 일

우리 가족은 매년 8월 15일을 특별한 날로 기념합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이어서 이 날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날로 기억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보스턴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감사하며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가집니다. 엄마와 아빠는 윤찬,혜원이에게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단다. 하지만 우리가 잠잘 때나 설 때조차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셨어.”

3. 믿음안에 뿌리내리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 가족은 보스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인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교회에 속한 보스턴 한국학교에서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전통 문화, 전통놀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윤찬이와 혜원이가 처음 글을 배울 때 한국어로 된 성경으로 쉽게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엄마는 윤찬, 혜원과 성경필사를 같이 하고 보스턴 한국학교에서 한국어와 미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드런스 뮤지엄, 디스커버리 뮤지엄, 보스턴 시티홀, 로컬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활동으로 아이들과 같이 봉사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찬, 혜원이가 태어나고 자란 보스턴한인교회는 어머니교회입니다. 주일예배와 선플라워, 유스그룹, 청년부, 부부청년부를 통해 부족함없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4-5)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리가 되어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성품을 듣고, 거울처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결코 멀리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고 서로의 짐을 지며 사랑하도록 리마인드해 주십니다. 윤찬이와 혜원이가 이러한 과정을 가정과 보스턴한인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자신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이 이끄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기라 믿습니다. 먹고 안아주고 재우던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만나는 윤찬,혜원의 앞날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3세대가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이 숨을 쉬고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믿음의 이야기로 화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보스턴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저희 가정이 8년간 정들었던 보스턴을 떠나 텍사스 달라스 근교로 이주한지도 벌써 6개월 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보스턴 여름 날씨 생각하며 아이들과 산책해볼까? 하며 집을 나서보지만 5분 이내에 다시 집으로 피신하는, 보스턴의 겨울이 짝꿍은 그리울 지경인 요즘입니다 ;)



지난 반년간 저희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가장 큰 변화는 지난 3월에는 저희 가정의 쌍둥이, 둘째, 셋째 남매둥이, 아들 은겸이와 딸 은비를 보내주신 것 입니다. 사실 거의 만삭 몸으로 이사를 하느라, 이사 직후 피비침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이벤트가 있었지만 주님 은혜로 두 아이를 건강하게 잘 출산하였습니다. 얼마 전 첫째 은유의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면서 하루종일 2살 첫째와 이제 두달된 아기들까지 셋을 돌보느라 엉덩이 붙이고 앉을 새 없는 나날들 이지만 난임으로 자녀를 간구하며 기도하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 바쁜 육아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임을 다시 상기하곤 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 곳의 한인교회에 새교우로 등록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보스턴한인교회에서의 인연인 이지훈/정은아 집사님 가정과 같은 교회에서 섬기게 되어서, 아직 낯선 교회이지만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새교우로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저희 가정의 친정 교회와 같은 보스턴한인교회 생각이 자주 납니다! 8년 전 결혼 하자마자 보스턴한인교회에 와서, 새교우 환영반 수료 직후 헌교우(?)로서 새교우들을 섬기던 기억들, 부부청년부에서 북적거리며 식사를 준비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던 행복한 기억들, 첫째 은유가 아장아장 걸으며 썬플라워에서 또 쉼마의 밤에서 함께 찬양하던 시간들! 보스턴한인교회의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헤어져있음이 너무나도 아쉽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어디에 있던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소식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스턴의 따스한 여름 햇살이 많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아직 보스턴에 못 가본 저희 쌍둥이들까지 데리고 그리운 얼굴들 보러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며.. 보스턴한인교회 교우님들 모두께 안부 전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In His Grip,
텍사스에서 신준섭, 박예리, 은유, 은겸, 은비 드림 ;)

교육2부 - 한가족 예술제 후기

윤경문 목사

매년 가지는 한가족 예술제를 올해에는 5월 19일(주일)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한가족 예술제는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여성회에서 주관하여 온 행사인데 올해는 특별히 교육 2부(부부청년부, 청년 1, 2부) 주관으로 3세대가 같이 참여하여 찬양하며 온 교우들이 하나됨을 누리는 기쁜 교회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각 구역들과 여러 부서들이 은혜로운 찬양들을 준비하여 참여하였고 한 구역에서는 skit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선플라워 유초등부의 “나의 처음 사랑”이란 찬양으로 시작되고 상록기도회분들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과 각 구역들의 아름다운 화음을 넣은 찬양들, 그리고 중앙 1구역의 ‘노아의 방주’ skit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부부청년부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과 청년 1,2부의 신나는 “One Way” 찬양곡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예술제가 끝난후에는 집사회와 당회원들께서 손수 준비하신 오찬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제목의 상(예, “감동과 영혼을 울리는 찬양을 선보인 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잘 표현한 팀” 등)과 상품을 참가한 구역/부서에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한가족 예술제]를 위해 교육 2부의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준비회의와 기획을 맡아주신 양원제/최효영 집사님, 진행을 맡아준 김호영, 이에복 교우님 그리고 방송실분들과 Stage Crew를 맡아서 정성스럽게 섬겨주신 청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준비를 도와주신 여성회와 집사회의 배광현 집사님과 오찬을 정성스레 차려주신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 참가팀

상	심사기준	수상팀	상품
신앙의 전진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잘 표현한 팀	남서구역	페이퍼타월
꿈나무상	어린이들이 주축이 되어 뛰어난 찬양을 한 팀	선플라워 유년부	과자
하모니의 별상	하모니가 가장 잘 맞았던 팀에게 주는 상	복서&중앙5구역	김 x2
믿음의 표현상	믿음을 주제로 가장 진솔한 표현을 한 팀	중앙3&4구역	김 x2
아버지 우산상	60대이상 (KCB의 우산이 되어주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참여한 팀	상록회	병뚜기
베스트커플상	부부동반으로 제일 많이 참여한 팀	부부청년부	컵라면
믹스 마에스트로상	세 곡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팀에게 주는 상	북동구역	치약
창의력 폭발상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인 팀	중앙1구역	봉지라면한박스
거룩한 찬미상	찬송가로 감동적인 찬양을 한 팀	중앙2구역	봉지라면한박스
결단과 순종의 멜로디상	결단과 순종의 가치를 잘 표현한 팀	중서3구역	페이퍼타월
꿈꾸는 청춘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지니고 노력하는 청년에게 주는 상	청년1,2부	쌀 x2

편집후기

역시나 이번 한울타리도 너무 풍성하다... 주여.....(편집하다 날선 헤덜리)

예.예.위원회 편집하던 중 한나 장로님의 생일축하 메시지, 홍보 위원회 편집하던 중 헤덜리 장로님의 생일축하 메시지. 편집 도중 카페 안을 두리번 거렸던... 설레는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편집하다 놀랜 ‘여기는 달라스’)

열심히 달린 2024년, 벌써 7월입니다. 한울타리는 이어달리기 같아요. 달라스님, 바통 잘 받았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헤롱헤롱 J)

이번 호도 역시나 장거리 선수들의 바통이어받기로 잘 진행되었네요.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보수동으로... 성화는 꺼지지 않고 도착지에서 개막식까지 잘 진행되었어요. (구경꾼 모드로 박수만 열심히~~ 힝햄 응원부)

